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40-02
연구보고 17-R18-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II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책임연구원 김현철

공동연구원 백혜정

NYPI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선애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목 차

I.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개요	1
1. 한국과 일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사례의 의미	3
2. 진로체험활동 사례의 유형	12
II. 한국사례	13
1. 창업과 기업가 정신	15
2.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체험활동 사례	17
3.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21
4.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동네일터 스탬프 투어’	24
5. 지역사회연계 진로박람회 사례	27
6. 지역사회연계 진로체험활동 사례	32
7. 초등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36
8. 꿈꾸는 날-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39
9. Star Gate 진로학교 운영사례	42
10.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진로교육사례 운영사례	45
III. 일본사례	47
1. 배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진로교육	49
2. 일본의 전문학교-직업관련 배움과 교육시스템	54
3. 식품공장과 지역에서 진로 찾는 고교생	57
4. 사립 중고일관고의 진로교육	60
5. 학교교육에 특화된 컨설팅으로 진로교육 지원 사례	62
6.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사례	65
7. 지역의 산업체를 진로교육에 연계한 오키나와 사례	69
8. 마을의 역사 돌아보기를 통한 진로교육 사례	73
9.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를 통한 진로교육 운영사례	76
10. 초등학교 꿈실현 키클만 횡단 수영 체험 사례	77
참고문헌	79

표 목차

〈표 1-1〉 트라이 야르 워크 실시 현황(2005~2015)	4
〈표 1-2〉 트라이 야르 워크 실시내역(2008)	5
〈표 1-3〉 일본의 중학교 직장체험 실시현황	10
〈표 1-4〉 일본 공립고등학교 인턴십 실시현황	11

그림 목차

【그림 1-1】 동경도 「워크 워크 워크 도쿄」 체험처 설문조사결과	6
【그림 1-2】 동경도 「워크 워크 워크 도쿄」 체험기간별 실시율 추이	7
【그림 1-3】 동경도 「워크 워크 워크 도쿄」 3일체험과 5일체험의 성과 비교 ..	8

제 I 장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개요

1. 한국과 일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사례의 의미
2. 진로체험활동 사례의 유형

제 I 장

진로체험활동 운영 사례 개요

1. 한국과 일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사례의 의미

본 사례집은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를 모은 것이다. 2017년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마련한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 비교 특별세션에서 발표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국내 사례로는 특별세션 발표사례 이외에 추가로 발굴한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일본 사례로는 특별세션에서 발표된 사례와 국외출장을 통해서 수집된 사례를 수록하였다.

아시아 국가간 진로교육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유사한 진로체험 중심형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외에는 없었다. 모든 나라들이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교과통합형의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는 한국과 비교할 만큼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머지 국가들의 사례는 본보고서(「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에서 다루었고, 본 사례집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만을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진로체험 중심형의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중학교에서의 직업체험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중학교 시기를 진로탐색의 시기로 보는 진로이론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에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이 있다. 1995년 한신대지진으로 효고현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 효고현 시민들은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중학교 2년생이 초등학생을 연속해서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대지진에 이어 효고현과 일본열도를 또 다시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효고현은 피해복구에만 전념한 나머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해법의 하나로 5일간 중학생의 직장체험인 「트라이 야르 워크」를 도입했다. 「트라이 야르 워크」는 1997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트라이 야르 워크」는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70% 정도가 직장체험활동에 참여한다. 하지만 기타 영역도 넓게는 진로체험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트라이 야르 워크」를 진로체험활동 사업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연간 약 5만 명 정도의 중학생이 5일간 체험활동을 경험한다. 참여팀의 평균 구성원 수는 평균 3명 정도이다(〈표 1-1〉참조).

「트라이 야르 워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0%의 학생이 충실하게 임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의 달성감, 자존감 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과 학습, 근로의식, 직업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 2008).

표 1-1 트라이 야르 워크 실시 현황(2005~2015)

연도	실시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참여그룹수	체험처수	멘토수
2015	362	1,418	47,523	17,657	17,557	22,531
2014	362	1,409	48,045	18,040	17,373	22,577
2013	364	1,415	48,801	17,660	17,261	22,955
2012	366	1,448	49,514	17,515	17,312	22,855
2011	365	1,437	48,885	17,355	17,306	21,992
2010	368	1,413	48,094	17,110	16,325	19,985
2009	369	1,403	47,271	16,487	15,893	20,093
2008	371	1,428	48,806	17,515	16,267	19,810
2007	370	1,381	46,821	17,019	15,498	20,509
2006	370	1,411	48,187	17,381	15,590	20,593
2005	372	1,437	48,546	16,613	15,720	20,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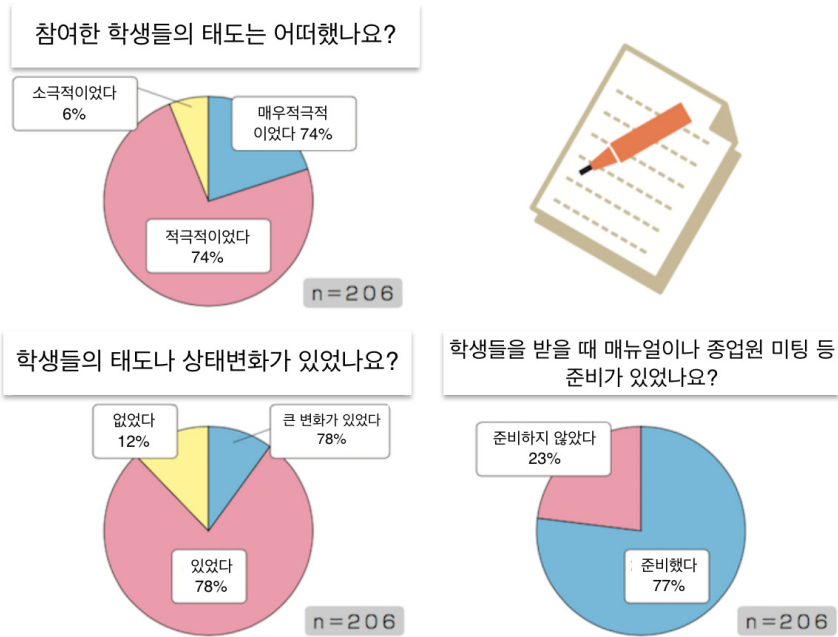
출처: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15), 2016年「トライやる・ウィーク」実施報告書.

표 1-2 트라이 야르 워크 실시내역(2008)

항목	내역
실시 학교 수	전공립중학교 352개교, 현립중등교육학교 1개교, 시립특별지원학교 17개교 ※ 총 370개교
실시 시기	6월 중 실시한 학교: 247개교 (66.8%)
	2실시 시기(11월 중 실시한 학교: 123개교 (33.2%)
참가 학생 수	46,821명
체험활동 장소 수	15,498개소
신규 체험활동 장소 수	1,952개소 (전체의 12.7%)
교구의 체험활동 장소 수	5,709개소 (전체의 37.0%)
체험활동 팀 수	17,029팀(1팀 당 2.7명)
지도자원봉사자 수	20,509명(학생 2.3명 당 봉사자 1명)
체험활동 분야	① 직장체험활동 (사업장소 등에서의 직장체험) (82.7%) ② 자원봉사복지 체험활동 (복지시설 등에서의 활동) (6.6%) ③ 문화예술창작 체험활동 (미술과 음악 등 활동) (5.0%) ④ 농림수산 체험활동 (농업, 낙농, 어업, 임업) (2.8%) ⑤ 기타 (국제이해, 환경조사 활동 등) (2.9%)

출처: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08). 「地域に学ぶ「トライやる・ウィーク」—10年目の評価検証(報告)」.

2004년 이후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공립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5일간 중학생 직장체험인 「커리어 스타트 워크」는 대상이 중학교 2년생으로 효고현의 「트라이 야르 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김현철, 2013). 동경도는 「커리어 스타트 워크」를 「워크 워크 워크 도쿄(Work Work Week Tokyo)」라는 명칭으로 운영한다. 중학생직장체험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각 학교나 지역을 지원하는 조직은 아니다. 시작 첫 해인 2005년에는 도쿄의 47.1%의 중학교가 참가했던 것이 2009년에는 98.9%의 학교가 참여하였다. 체험 일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체험의 일수가 늘어나 2012년에는 60%이상이 3일 이상 직장체험을 실시했다. 5일 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1-1】 동경도 「워크 워크 워크 도쿄」 체험처 설문조사결과

출처: 東京都(2010). ワークワークウィーク東京平成20年度中学生の職場体験の中間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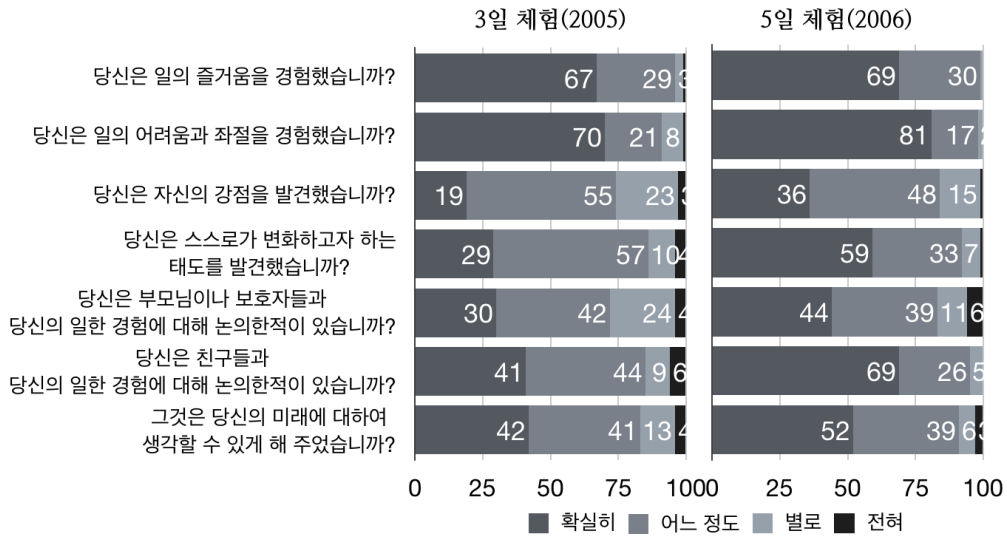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체험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태도는 적극적이었고, 체험후 학생들의 태도나 상태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학생들을 받아들 때 체험처의 77%는 준비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1개 학교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험처가 가장 많으나, 절반 정도의 체험처는 2개 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수는 1~5인이 가장 많고, 10인 이내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은 80%정도로 소인수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험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수가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일본의 경우 체험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인수로 체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체험처의 부담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만, 체험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림 1-2】 동경도 「워크 워크 워크 도쿄」 체험기간별 실시율 추이

출처: 東京都(2010). 워크워크워크東京平成20年度中学生の職場体験の中間報告書.

2012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한국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종합적인 학습시간」의 총시수가 줄어들었다. 이로써 체험활동운영이 다소 위축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체험활동의 사전 사후활동을 교과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족한 「종합적인 학습시간」 시수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5일 체험도 줄었지만, 1~2일 체험도 다소 줄어들고 있다. 반면, 3~4일 체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동경도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체험기간별 실시율 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점차 참여학교가 늘어나다 2012년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3~4일 체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東京都, 2010).



【그림 1-3】 동경도 「워크 워크 워크 도쿄」 3일체험과 5일체험의 성과 비교

출처: Results of questionnaire completed by 8th grade students of Johoku Lower Secondary School, Joetsu City, Niigata Prefecture, regarding their work experience programs (comparison of three-day experience (2005) and five-day experience (2006) [Re-compiled from data included in Niigata Prefectural Education Council (2009), Towards Career Education that Allows Niigata's Children to Realize Their Dreams—Measures Taken as Part of Niigata Prefecture Career Start Week, Fiscal 2008], Fujita, 2017에서 재인용.

[그림 1-3]은 5일간의 직장체험을 한 조에츠시 중학교 2학년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1)결과이다. 5일간의 체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깊은 자기 이해와 사회적 인식을 갖게 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습니까?“, “바꾸고 싶은 자신의 특징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일의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3일 체험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3일 체험은 5일 체험보다 평가결과가 다소 낮게 나왔지만, 3일 체험에 대한 평가결과도 좋았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다(Fujita, 2017).

그렇지만, 일본 모든 지역에서의 성과가 같은 것은 아니다. <표 1-3>은 전국의 중학생 직장체험 실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에츠시가 속해 있는 니가타현은 모든 중학교가 직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5일 체험을 하는 학교의 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조에츠시는 중소도시로 <표 1-3>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중학교가 5일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일본 각 지역의

1) 설문조사는 조에쓰교육대학의 미무라 다카오(三村隆男) 연구실이 개발한 ‘중학생용 진로결정 자기효력 척도’에 의거해서 실시되었다. 이 자기효력 척도는 전부 2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직장 체험 직전에 사전검사, 직장 체험 종료 후에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상황에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효고현과 고베시의 경우, 100% 5일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트라이 야르 워크」 때문이다. 학교구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동경도라도 스기나미구의 중학교구에서는 모든 학교가 5일 체험을 실시한다. 동경도는 전체적으로는 98.3%의 학교가 직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 14.1%만이 5일 체험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의 67개 지역 현황을 통해서 보면, 100% 5일 체험을 하는 지역은 효고현과 고베시에 한정된다(고베시는 효고현의 현청소재지이다). 그렇더라도 일본 중학교 직장체험은 많은 좋은 사례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는 고등학교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다. 이 현황자료는 몇 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인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81.8%의 학교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사례집에 소개된 일본사례에는 중학생의 5일간 직장체험 사례가 한 사례밖에는 없지만, 중학생 5일간 직장체험은 일본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하루 체험 이상의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루 체험이라도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이 체험일 전후로 시행되는 경우라면, 3일 체험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3일간 추진하는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직장체험이라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은 인턴십체험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본보고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에서의 직업체험을 직업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직장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직업체험을 통해서 해당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직장에서 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직업인들의 태도나 정신을 배우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는 고등학교에서 특정 직업과 관련된 인턴십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표 1-3 일본의 중학교 직장체험 실시현황

번호	지역	학교수	실시 학교수	2015 실시율	5일 이상 실시교 수	5일 이상 실시율	번호	지역	학교수	실시 학교수	2015 실시율	5일 이상 실시교 수	5일 이상 실시율
1	홋카이도	514	506	98.4%	5	1.0%	35	아마구치현	155	153	98.7%	3	2.0%
2	아오모리현	160	157	98.1%	8	5.1%	36	도쿠시마현	85	84	98.8%	0	0.0%
3	이와테현	167	165	98.8%	10	6.1%	37	가가와현	6B	67	98.5%	1	1.5%
4	미야기현	139	136	97.8%	1	1.5%	38	에히메현	133	131	98.5%	1	0.8%
5	아키타현	117	117	100.0%	18	15.4%	39	고치현	107	102	95.3%	6	5.9%
6	아마가타현	101	99	98.0%	3	3.0%	40	후쿠오카현	210	201	95.7%	15	7.5%
7	후쿠시마현	222	214	96.4%	21	9.8%	41	사가현	91	89	97.8%	2	2.2%
8	이바라키현	224	224	100.0%	17	7.6%	42	나가사키현	172	170	98.8%	3	1.8%
9	도치기현	163	160	98.2%	65	40.6%	43	구마모토현	124	122	98.4%	5	4.1%
10	군마현	165	163	98.8%	60	36.8%	44	오이타현	127	126	99.2%	1	0.8%
11	사이타마현	361	354	98.1%	6	1.7%	45	미야자키현	136	132	97.1%	0	0.0%
12	지바현	326	321	98.5%	3	0.9%	46	가고시마현	225	202	89.8%	16	7.9%
13	도쿄도	827	625	99.7%	170	27.2%	47	오кина와현	149	141	94.6%	12	8.5%
14	가나가와현	177	167	94.4%	2	1.2%	48	삿포로시	100	97	97.0%	0	0.0%
15	니가타현	180	180	100.0%	26	14.4%	49	센다이시	64	64	100.0%	16	25.0%
16	도야마현	81	81	100.0%	80	98.8%	50	사이타마시	57	57	100.0%	0	0.0%
17	이시카와현	87	87	100.0%	0	0.0%	51	지바시	55	55	100.0%	3	5.5%
18	후쿠이현	75	74	98.7%	8	10.8%	52	요코하마시	147	146	99.3%	1	0.7%
19	아마나시현	85	85	100.0%	2	2.4%	53	가와사키시	53	53	100.0%	0	0.0%
20	나가노현	189	189	100.0%	11	5.8%	54	사카이시	37	37	100.0%	0	0.0%
21	기후현	185	184	99.5%	6	3.3%	55	니가타시	58	57	98.3%	1	1.8%
22	시즈오카현	172	171	99.4%	2	1.2%	56	시즈오카시	43	43	100.0%	0	0.0%
23	아이치현	306	306	100.0%	36	11.8%	57	하마마쓰시	49	49	100.0%	0	0.0%
24	미에현	158	156	98.7%	4	2.6%	58	나고야시	111	106	95.5%	1	0.9%
25	시가현	99	99	100.0%	95	96.0%	59	교토시	73	72	98.6%	21	29.2%
26	교토부	96	9A	97.9%	1	1.1%	60	오사카시	130	128	98.5%	0	0.0%
27	오사카부	230	287	99.0%	2	0.7%	61	사카이시	43	39	90.7%	0	0.0%
28	효고현	262	262	100.0%	262	100.0%	62	고베시	82	82	100.0%	82	100.0%
29	나라현	104	101	97.1%	2	2.0%	63	오카야마시	38	38	100.0%	0	0.0%
30	와카야마현	126	121	96.0%	2	1.7%	64	히로시마시	65	62	65.4%	4	6.5%
31	돗토리현	59	56	94.9%	21	37.5%	65	기타큐슈시	62	62	100.0%	18	29.0%
32	시마네현	95	95	100.0%	6	6.3%	66	후쿠오카시	69	69	100.0%	0	0.0%
33	오카야마현	123	122	99.2%	5	4.1%	67	구마모토시	43	43	100.0%	1	2.3%
34	히로시마현	173	171	98.8%	148	86.5%	합계		9,569	9,408	98.3%	1,322	14.1%

출처: 日本国立教育研究所(2017), 2015年度における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実施状況経年変化に関する報告書.

표 1-4 일본 공립고등학교 인턴십 실시현황

번호	지역	학교수 (교)	실시 학교수(교)	27년도	번호	지역	학교수 (교)	실시 학교수(교)	27년도
				실시율					실시율
1	홋카이도	261	245	93.9%	35	야마구치현	72	57	79.2%
2	아오모리현	70	54	77.1%	36	도쿠시마현	41	38	92.7%
3	이와테현	74	60	81.1%	37	가가와현	42	34	81.0%
4	미야기현	78	52	66.7%	38	에히메현	65	52	80.0%
5	아키타현	57	50	87.7%	39	고치현	50	39	78.0%
6	야마가타현	51	42	82.4%	40	후쿠오카현	121	110	90.9%
7	후쿠시마현	96	63	65.6%	41	사가현	42	36	85.7%
8	이바라키현	104	99	95.2%	42	나가사키현	65	53	81.5%
9	도치기현	67	54	80.6%	43	구마모토현	66	62	93.9%
10	군마현	82	70	85.4%	44	오이타현	49	44	89.8%
11	사이타마현	163	93	57.1%	45	미야자키현	42	39	92.9%
12	지바현	143	114	79.7%	46	가고시마현	74	67	90.5%
13	도쿄도	233	138	59.2%	47	오кина와현	66	59	89.4%
14	가나가와현	164	154	93.9%	48	삿포르시	9	9	100.0%
15	니가타현	95	91	95.8%	49	센다이시	6	2	33.3%
16	도야마현	44	43	97.7%	50	사이타마시	4	0	0.0%
17	이시카와현	46	44	95.7%	51	지바시	2	2	100.0%
18	후쿠이현	36	35	97.2%	52	요코하마시	10	7	70.0%
19	야마나시현	39	34	87.2%	53	가와사키시	10	9	90.0%
20	나가노현	101	95	94.1%	54	사가미하라시	-	-	-
21	기후현	70	62	88.6%	55	니가타시	3	2	66.7%
22	시즈오카현	110	85	77.3%	56	시즈오카시	3	2	66.7%
23	아이치현	175	152	86.9%	57	하마마쓰시	1	0	0.0%
24	미에현	66	60	90.9%	58	나고야시	16	15	93.8%
25	시가	54	39	72.2%	59	교토시	11	4	36.4%
26	교토부	60	54	90.0%	60	오사카시	20	16	80.0%
27	오사카부	158	87	55.1%	61	사카이시	2	2	100.0%
28	효고현	156	148	94.9%	62	고베시	9	9	100.0%
29	나라현	40	34	85.0%	63	오카야마시	1	1	100.0%
30	와카야마현	51	34	66.7%	64	히로시마시	8	4	50.0%
31	돗토리현	26	24	92.3%	65	기타큐슈시	1	1	100.0%
32	시마네현	39	32	82.1%	66	후쿠오카시	4	4	100.0%
33	오카야마현	63	45	71.4%	67	구마모토시	2	2	100.0%
34	히로시마현	100	77	77.0%			4,089	3,344	81.8%

주1) 이 수치는 2016년 1월 27일자 사무연락 '2015년도 직장 체험·인턴십 실시 상황 등 조사에 대하여'를 토대로 각 지역 교육위원회 및 각 학교에서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다.

출처: 日本国立教育研究所(2017).2015年度における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実施状況経年変化に関する報告書.

2. 진로체험활동 사례의 유형

한국과 일본의 사례는 주체별로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체험처가 주도한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운영,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학교조직의 변화를 동반한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진로교육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지역사회 진로전문인력을 활용한 사례, 지역사회 마을교사를 활용한 사례 등이다. 일본의 마지막 사례는 진로교육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매우 좋은 진로교육사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향후의 진로교육이 추구해야 할 사례일지 모른다. 또한 매년 가고시마의 초등학생들이 수영으로 바다를 건너는 사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 Ⅱ 장



한국사례

제 II 장 한국사례

01 창업과 기업가 정신(고등학교 사례)

1) <창업과 기업가정신> 자율동아리 운영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실화

-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대상 : 1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 중심으로 20명 내외로 조직, 운영
- 활동 장소 : 교내 및 체험처(온·오프라인으로 활동), 분당 네이버 사옥, 강남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등
- 운영 방법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PP)의 창업 관련 콘텐츠와 전문가 온라인 멘토링, 동아리활동 미션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부가 후원하고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최하며 OEC 재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네이버와 함께 하는 기업가정신 스쿨 프로그램으로, 1학기 6회의 정규프로그램 교육, 3회의 문제해결 캠프, 1회의 결과 공유발표회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개요 - 정기교육

정기 프로그램(2시간X6차시, 서울·경기 20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 2학기 프로그램으로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제 창업에 성공한 창업가들을 초빙하여 사례를 경청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방과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자율동아리 활동의 수행 결과는 12월 교내 동아리발표회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천시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진행한다.

2) 교과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지향

- 학년 융합 교육과정 재구성
 - ▶ 목적
 - 교과외 독립적 성격을 넘어서 교과 간 영역의 범위를 통합하여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교과 지식에만 치우친 교육과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획일적인 교수학습의 틀에 변화를 시도한다.
 - ▶ 방침
 - 교과 담당교사의 충분한 협의회를 거쳐 일정을 진행한다.
 - 사후평가회를 통해 수정, 보완점을 찾고 이를 반드시 다음 학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진로교육 사례 소개

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수원농생고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1) 졸업생 및 현장 전문가들의 진로 특강 : 개인 진로 준비 정보와 취업 노하우, 그 직업영역의 특징, 삶의 태도 공유
- (2) 전문직업인의 특강 : 전공 분야 심화 특강과 관련 진로 안내
- (3) 채용설명회와 채용박람회 : 인사담당자의 업체 및 직무설명회 및 채용면접과 면담, 정보공유
- (4) 현장견학 : 공장, 연구소, 취업업체, 박람회 등의 현장답사(학부모동반, 견학 시 모의면접 프로그램, 현장 전문가 특강 병행)
- (5) 현장직업체험 : 방학기간을 활용한 현장직업체험
- (6) 진로캠프 : 학교 적응을 위한 신입생의 진로캠프(수원시연계), 취업준비를 위한 징검다리취업캠프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재능기부와 취업의 연계

- (1) 2014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조농업교실 재능기부로 찾아오는 전문가 특강 실시
- (2) 2015~2016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재단 시설을 이용하여 농업기계검정의 이해, 대형트랙터 주행체험, 햄버거 패티 유전자 분석 실험 등 실시
- (3) 신문기사 일부 내용 발췌

	<p>... '창조농업 교실'은 재단의 박사급 인력과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 가치평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p> <p>.. 작년 수원농생고에서 처음 제안해 시범운영되다가 교육현장의 반응이 좋아 계속 추진요청이 있어 금년에 확대운영되었다..</p> <p>.. 6개과정 22개 주제로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체험교육을 강화.</p> <p>앞으로 지방농과계열 학교와의 재능기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계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농업의 미래를 밝혀 나가는데 힘쓰겠다.</p> <p>[농민신문. 2015.4.21.]</p>
--	-------------------------------------------------------------------------------------------------------------------------------------------------------------------------------------------------------------------------------------------------------------------------------------------------------------------------------------------------------

(4) 취업과의 연계 : 2013(1명), 2014(1명), 2015(2명)

다. 진로캠프와 취업캠프

(1) 진로캠프

-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21만원 중 14만원 지원, 개인 7만원부담),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총괄 운영하여 수원 관내 특성화고 학생 대상 신입생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
-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기초직업역량과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자리
- 자기이해, 팀 빌딩, 진로 목표 설계를 통한 학교 적응

(2) 징검다리 취업캠프

- 취업희망자의 자신감 증진 및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
- 2학년 2학기에 16시간 구성, 월 1회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에서 활동, 15~20명 구성
- 내용 : 직업심리검사와 해석,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쓰기과 코칭, 이미지메이킹, 직장 내 대화법과 직장예절, 1분 자기소개 준비, 면접스피치와 모의면접, 워크넷 기업탐색과 서류지원 실습, 근로계약서작성과 근로기준법
- 운영 : 진로교사, 취업지원관, 외부강사
- 방법 : 교재제작 배부, 실습중심프로그램, 사후 만족도조사
- 효과 : 학생과 교사 내부에서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개인진로 맞춤 코칭이 가능, 학생 주도 취업 동기 부여 가능, 취업률향상(11년 17.8% → 15년 48%)

2) 현행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개인 맞춤 진로교육의 질적 접근요구와 현실적 학교 자원의 한계

- 사회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네트워크 수준 향상, 정보의 공유, 진로에 대한 사회적 현상 등의 문제 공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관리자와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로교육의 요구 수준은 “개인맞춤 진로교육프로그램 제공” 을 지향

- 학교 규모와 학교의 지리적 위치, 물질적 자원의 투자 규모, 교사 및 학부모 구성원의 규모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수준,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 교육과정 선택 시수 등에 따라 학교마다 진로교육의 모습은 다름. 대체로 학교는 (진로)교사의 소명의식과 책임에 의존하는 편임
- 진로 체험 인솔 : 교사 수업으로 출장 가능한 교사를 중심으로 배치, 학생과의 라포 형성과 현장 피드백의 적절성 검토, 현장 체험 인솔로 교사가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공과 교사가 인솔
-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진로 업무를 함께 할 상시 지원 인력 필요 : 도시형, 대규모 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결과의 평가 반영, 진로상담에는 많은 업무 조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지원관, 일반고에서는 진로코디네이터)
- 학교 급에 맞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으로 형식적이거나 맛보기 체험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본에 충실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취업 후 부적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 오랜 진로 준비에 도 불구하고 적응시기에 인내심과 책임감이 부족한 현실 개선을 위함. 그리고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수준이 다양하지는 않음(초, 중, 고, 특성화고)
- 개인의 취업과 진학 진로 설계와 준비를 위한 도구적 진로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음
→ 역량중심 진로교육 인식과 훈련, 삶이 가치와 태도를 점검하는 성찰적 진로교육(성장)
- 진로교사의 업무에 대한 순수성 보장

(2) 특성화고 진로교육 : 가정과 사회보다 앞선 가치, 능력중심사회 실현의 선구자적 고통과 책임

- 가정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진로, 정책적 진로교육, 같은 것을 원하지만 실천적 측면에서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서로 다른 눈높이(예: 일자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장 및 법적 근로시간 보장을 협의하고 (영세)기업의 관리자 대상 성 인식과 노동인권의 가치 등 노동교육과 고용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사

- 기업에서 학교에서와 같은 역할과 대우를 기대하고 서비스 받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과 만들어진 좋은 인재를 바라는 업체 사이에서 중간지대 역할 수행
- 고졸 취업, 능력중심 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 기업대상 학부모대상 인식개선 노력을 교사가 수행하나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느려 인식변화체감이 잘 되지 않음.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대학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후진학을 선택하거나 진학을 위해 취업을 포기함

1) 자유학기 진로교육 운영 사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세 학기 중, 학교의 장이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학기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방식 개선과 함께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탐색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진로인식과 탐색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육은 어떻게 실시될 수 있는가? 자유학기활동에서의 진로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활동에서 진로 탐색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선택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와 인성을 혼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필고사 기간을 활용한 소규모 현장 진로직업 체험활동이다. 학교가 속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삶의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직업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을 바꾸어 주어 현실적 직업관을 갖게 됨으로써 직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보다는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직업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알도록 하게 한다. 1차와 2차 지필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동안에 두 차례의 체험활동을 실시하는데, 1차는 학부모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천중학교 체험활동 예시〉

■ 사전활동

- 학부모지원단 사전 연수(교육) : 2017. 4.12(수) 14:00-16:00
- 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 4.25(화) 1교시

■ 운영기간

- 4월 25일(화) : 체험 일터 확인, 체험관련 직업분야 사전 조사, 체험 계획하기
- 4월 26일(수) : 22개 직업체험 터전으로 진로직업 체험활동

■ 방침

- 학부모지원단을 중심으로 발굴된 일터를 중심으로 학생의 희망을 받아 체험일터를 매칭한다.
- 일터로부터 교육기부확인서를 받아 운영하며, 일터 멘토에게 직업체험의 취지와 방법을 알려준다.
- 학생 사전 지도를 통해 체험활동의 목적, 방법, 이동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및 공중도덕 등을 철저히 지도한다.
- 체험과정에서 알게 된 결과 소감을 정리하여 진로체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우수작에 대해 시상한다.

■ 체험분야별 체험 일터 참가 현황

체험방식	체험분야(장소)						
	인원						
소규모체험 (교육기부)	의료	서비스	연구원	학과체험	보드게임	미술체험	은행
	18	13	6	14	6	7	3
그룹 체험 (꿈길활용)	시제품 제작	법률	상담	패션디자 이너	박물관	공공기관	기후변화 체험관
	21	16	13	24	60	39	22

2)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면 학교와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 인프라를 발굴, 구축하는 일이나 자유학기 활동의 선택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이 때 학부모들의 재능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가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동적 역할과 단순히 교육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학부모회를 능동적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체험장 발굴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학부모들의 기능이나 지적·경험적 능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학부모가 지역사회의 일원이기에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바른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진정한 학력이란 스스로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능력이며, 진정한 학력이 있어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참여교육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적 지식과 인성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교실 밖 수업이 가능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곧 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인지적 영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경험적 지식을 쌓게 해줌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보완적 활동을 담당해야 한다.

각 지역에 진로체험센터가 건립되어 있긴 하지만 진로체험 터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진로체험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중심의 실질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가. 운영 목적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 마을의 다양한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현장 중심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실시

나. 운영 개요

<p>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계획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 : 6. 22(금) 1~4교시 2) 대상 : 5학년 전체(3반), 6학년 1반(총 67명) 3) 장소 : 학교 주변 관공서 및 일터 탐방 4) 직업체험 장소 : 12개 일터(직업흥미 유형별 1인당 2곳씩 방문)
<p>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운영 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 수립 : 초등 직업체험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2) 학교 진로교육협의회 구성(11명)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 3) 학부모 진로코치단 모집(5명) : 가정통신문 배부 4) 지역사회교사기획단 협의회 구성 : 교사(2개 학교), 상상이룸센터 5)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교육(3시간씩 2회) : 상상이룸센터 6) 동네 일터 발굴(12개 장소) : 학부모 진로코치단 7) 활동 준비물 구입 : 스탬프(6종 12개), 체험북(스탬프 찍는 수첩) 8) 사전 협의회 실시 : 세부일정 협의(학부모, 교사), 안전교육 계획 9)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 대상 학생 10) 동네 일터 안전 점검 : 학부모 진로코치단(안전점검표 체크) 11) 학생 안전사고 예방 사전 지도 : 학급별 안전교육 실시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실시	1)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시</th> <th>활동 내용</th> <th>활동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1교시</td> <td>▶ 직업 체험활동 안내 및 안전지도</td> <td>각 교실</td> </tr> <tr> <td>2~4교시</td> <td>▶ 인솔교사와의 만남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실시</td> <td>2층 강당, 동네 일터 탐방</td> </tr> <tr> <td>5교시</td> <td>▶ 활동 결과 발표회</td> <td>각 교실</td> </tr> <tr> <td>6.28(화) 15:00~</td> <td>▶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평가회 실시</td> <td>5-1 교실</td> </tr> </tbody> </table>	일시	활동 내용	활동 장소	1교시	▶ 직업 체험활동 안내 및 안전지도	각 교실	2~4교시	▶ 인솔교사와의 만남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실시	2층 강당, 동네 일터 탐방	5교시	▶ 활동 결과 발표회	각 교실	6.28(화) 15:00~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평가회 실시	5-1 교실																								
일시	활동 내용	활동 장소																																						
1교시	▶ 직업 체험활동 안내 및 안전지도	각 교실																																						
2~4교시	▶ 인솔교사와의 만남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실시	2층 강당, 동네 일터 탐방																																						
5교시	▶ 활동 결과 발표회	각 교실																																						
6.28(화) 15:00~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활동 평가회 실시	5-1 교실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평가회	2) 직업체험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일터 탐방 경로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일터</th> <th>이동</th> <th>유형</th> <th>일터</th> </tr> </thead> <tbody> <tr> <td>R(실재형)</td> <td>피터팬치과</td> <td>→</td> <td>A</td> <td>상상놀이터</td> </tr> <tr> <td>A(예술형)</td> <td>상상놀이터</td> <td>→</td> <td>C</td> <td>행복발전소</td> </tr> <tr> <td>C(관습형)</td> <td>행복발전소</td> <td>→</td> <td>S</td> <td>공릉초 병설유치원</td> </tr> <tr> <td>I(탐구형)</td> <td>경희한의원</td> <td>↔</td> <td>S</td> <td>공릉지구대</td> </tr> <tr> <td>R(실재형)</td> <td>911무인경비</td> <td>↔</td> <td>A</td> <td>에브리뮤직</td> </tr> <tr> <td>A(예술형)</td> <td>드롭탑</td> <td>↔</td> <td>C</td> <td>농협</td> </tr> <tr> <td>S(사회형)</td> <td>공릉1동 주민센터</td> <td>↔</td> <td>R</td> <td>연세사랑병원</td> </tr> </tbody> </table>	유형	일터	이동	유형	일터	R(실재형)	피터팬치과	→	A	상상놀이터	A(예술형)	상상놀이터	→	C	행복발전소	C(관습형)	행복발전소	→	S	공릉초 병설유치원	I(탐구형)	경희한의원	↔	S	공릉지구대	R(실재형)	911무인경비	↔	A	에브리뮤직	A(예술형)	드롭탑	↔	C	농협	S(사회형)	공릉1동 주민센터	↔	R
유형	일터	이동	유형	일터																																				
R(실재형)	피터팬치과	→	A	상상놀이터																																				
A(예술형)	상상놀이터	→	C	행복발전소																																				
C(관습형)	행복발전소	→	S	공릉초 병설유치원																																				
I(탐구형)	경희한의원	↔	S	공릉지구대																																				
R(실재형)	911무인경비	↔	A	에브리뮤직																																				
A(예술형)	드롭탑	↔	C	농협																																				
S(사회형)	공릉1동 주민센터	↔	R	연세사랑병원																																				
	▶ 활동 결과 정리 1) 시간 : 6월 22일(수), 5,6교시 2) 활동 : 만족도 설문조사, 소감문 작성, 진로신문 만들기 3) 평가 협의회 : 5, 6학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																																							

다. 운영 효과

- 직업흥미검사 결과에 따른 직업 유형별 체험활동 진행을 위해 소통하고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과 직업을 찾아보는 기회 제공
- 학교 주변의 직업체험 일터를 발굴하여 참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직업체험 효과 극대화
- 학생들의 직업흥미에 따른 유형별 일터체험 활동 및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직업인의 어려움과 보람 경험

2)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문제점

-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필요 : 교육과정 재구성, 동료 교사의 참여 유도, 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생 직업유형 검사 진행의 어려움(컴퓨터 활용 검사) 등 업무량 증가
- 학부모 진로코치단 발굴의 어려움 :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인식
- 학교 주변 동네 일터 발굴의 어려움 : 지역 일터 운영자의 영업 활동에 손해
- 직업 유형별 다양한 일터 발굴의 어려움 : 지역적 특성상 유형별 일터가 다양하지 않음
- 직업 유형별 학생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직업 유형별 일터 탐방 매치가 어려움
- 직업체험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직업체험에 따른 실습비 발생
-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의 정착

나. 개선 방향

- 지역사회 진로교육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진로교육 협의회 조직 및 운영
- 학부모 진로코치단원의 심화연수를 통한 지역사회 진로교육 멘토(명예교사)로 지속적인 활동
- 학교와 학교 주변 일터,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지역사회 일터 체험 기관인증장(마크, 표지판, 감사장 등) 발급을 통한 일터 참여 활성화(참여 일터 인센티브 제공)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연수를 통한 지역사회 일터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1) 사업목적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목표

가. 지역자원중심의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 ☞ 지역청소년들의 진로고민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세대, 구성원이 참여
- ☞ 늘 대면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지역 일터가 참여
- ☞ 진로교육을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이슈화하여 지역자원 총체적 연계의 장

나. 관람에서 체험위주의 진로박람회로 운영방식 변화

구분	기존 박람회	마포진로박람회
참가 대상	불특정 다수	회차별 부스참가 대상 사전 확정(중학교 1학년) 사전예약부스)사전매칭(참가인원, 명단확정) 자유체험부스)시간대별 학교 매칭(인원확정)
부스별 운영	부스별 자유운영	부스참가자 정보 사전에 공유, 연령/성별에 맞게 부스활동 구성 사전예약부스)14~15명 대상 수업/체험(40분) 자유체험부스)부스별 자유운영
참가자	체험시간 예측불가 (긴 대기시간)	사전예약부스(40개 중 2개 직업 체험) + 자유체험부스(45분간 30~40개 중 선택체험) (총150분)

다. 통합적 진로교육으로서의 진로박람회

- ☞ 다양한 지역사람들과 관계 형성 및 여러 직업군과의 만남 등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 시도
- ☞ 특정 직업군을 체험하는 방식이 아닌 진로에 대한 보편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획

3) 사업개요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시	12. 8. (수)	7. 17. (목)	5. 20. (수)	4. 26. (화)	4. 27. (목)
장소	마포구청	마포구청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참여 대상	5개 중학교	5개 중학교	5개 중학교	14개 중학교	11개 중학교
참가 인원	청소년 1,400명 성인 100명	청소년 1,954명 성인 317명	청소년 1,759명 성인 300명	청소년 2,844명 성인 695명	청소년 2,241명 성인 500명
참여 부스	진로콘서트 체험, 상담(50개)	진로콘서트 직업체험(39개), 멘토상담(26개)	직업체험 61개	직업체험 105개	직업체험 103개
주요 내용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지역자원이 소개하는 직업체험부스 운영				

4) 프로그램 운영방식

구분	사전예약체험부스	자유체험부스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스별 참가학생 사전에 신청하여 매칭 ○ 부스별 40분간 프로그램 참여 (직업, 기관의 업무 소개 및 관련 직업 체험) ○ 학생 1인 2개 부스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분간 체험부스 관람·체험 ○ 총 30~40개 부스 중 자유참여 ○ 학생 1인 1개~8개 부스체험
1부) 10:00~12:30	1회) 10:00~10:40 (40분), 2회) 10:50~11:30 (40분), 3회) 11:40~12:20 (40분)	
12:30~13:40	점심식사 및 휴식	
2부) 13:40~16:00	4회) 13:30~14:10 (40분), 5회) 14:20~15:00 (40분), 6회) 15:10~15:50 (40분)	

5)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STEP1) 기획	STEP2) 준비	STEP3) 실행	STEP4)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진로교사 간담회 실시 ○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사기획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참여기관 섭외 지역 기업, 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 단체별 부스내용 확정 ○ 부스 운영방식 선택 ○ 부스별 참가 청소년 매칭 ○ 참가단체/학교별 공지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박람회 현장세팅 ○ 행사운영 ○ 학교) 참가학생 만족도 설문 ○ 부스) 운영자 만족도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만족도 결과 공유 운영평가 ○ 부스) 만족도 결과 공유, 참여 감사 표시 사후 사업연계 요청 ○ 스텝) 행사운영 세부 평가

○ 참여 주제별 추진계획

중학교	지역사회	구청	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1 자유학기제 지원 ○ 진로교사, 학년부장, 담임교사 협조 요청 ○ 참가 청소년 특성, 개별의견을 고려한 참가자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참여 독려 ○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특성에 맞는 체험 구성 ○ 사후 수고에 대한 격려 및 지속적 참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진로교육 중요성 이해 및 참여 설득 ○ 사업의 지속적 지원 설득 ○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조 및 참여 독려 ○ 구체적 업무 및 역할 부여; 보도자료 배포, 사후 구청장 감사 서한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참여 동기 부여 (기관, 학부모, 지역주민 등) ○ 사후 수고에 대한 격려, 지속적 참여 요청

6) 주요성과 및 평가

- 지역 내 다양한 일터, 공공기관, 개인이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여 청소년들에게 값진 체험의 기회제공함.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인의 삶과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몸소 느끼며,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됨.
- 참가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4.29점, 참가 교사의 만족도는 4.7점(5점 만점)으로 높게 응답되어 진로박람회를 통해 지역 내 일터 및 직업과 정보를 수집하고 참가청소년의 진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2016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 체험부스의 운영자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욕구를 직접 느끼며, 관내 진로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 향후 진로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적인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됨

7) 활동사진

		
<p>행사장 전경</p>	<p>시각장애 체험</p>	
		
<p>아프리카 전통악기 연주</p>	<p>VR 체험</p>	<p>문화PD 직업소개</p>



군인 직업소개

3D 프린팅 시현

드론조종사

'2016 마포진로박람회'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제4회 마포진로박람회 - 지역사회의 역량개발의 날

우리 아이들의 진로고민 해결을 돕고자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2016 마포진로박람회'와 '남양주혁신도시'가 마포구 14개 중학교 3,000명 청소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대 아온 무려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여직원들이 물과 신선 노릇이 있었기에 온 행사에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101개 기업에서 500명의 직업멘토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참가자들의 진사인사를 받으며 각 부스에서 이색적인 인성적인 만남을 풍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찾아보고 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치지 못하고 서연으로 대신할을 널리 해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포진로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DMC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동체의 장이자 교육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를 통해 우리구의 미래세대 키우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기울어 주시기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인 계획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4. 28.

구청장 감사서한

경제
 경제발전 체제고 중관 부동산 IT/교육 경제발전

[포토중앙] 첫 방송 수줍은 미소... '마포 진로박람회'

▶ [포토] 김예 2016.04.27 15:50

상암중학교 학생들이 27일 서울 월드컵공원 야외에 임시로 설치된 라디오 방송국에서 알뜰 DJ 제임을 하고 있다. 2017 마포 진로박람회가 열린 이곳 행사장에는 방송·교육·문화·예술·의료·관광 등의 분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103개가 설치됐다. 사진 속 학생들도 이날 안내 멘토와 음악 신곡 등 실제 방송을 하는 것처럼 10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들 상암중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포구 관내 11개 중학교 1·2학년생 2800여명이 참가했다. 500명의 직업인 멘토들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보도자료



2016 진로멘토 감사의 자리

한국사
제 II 장

□ 2016 마포 진로박람회 영상: <https://youtu.be/Pdn5vOqQUzI>

06 지역사회연계 진로체험활동 사례(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소개

(1) 사업명 : 약령직업탐험대

(2) 사업배경 : 동대문구는 한의약특구로서 한국최대 약재시장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 약재시장 속에는 무역상, 탕약사, 제분사, 한약사,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있어, 학생들에게 한약이라는 자원 안의 다양한 직업과 직무를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관내 소재 대학인 경희대에 한약학과(국내 한약학과 중 최고)가 있어 그 인적자원까지 활용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진로교육 운영이 가능하다.

(3) 사업협력구조

기관	역할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학교연계 및 대상학생 모집, 평가
서울약령시협회	약령시장 자원 연계 제공
경희대학교한약학과	대학생멘토 자원 제공
협동조합 TORY	대학생 자원 훈련 및 관리, 현장 모니터링
동대문구	예산 지원 (동대문구 혁신사업)
동부교육지원청	

(4) 사업내용

(가) 대상 : 관내 초등 21개교, 중등 15개교(초등 4학년~ 중학교3학년)

(나) 장소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약령시장

(다) 내용 : 한약 및 약령시장 소개, 한약학과 소개 및 진로 Q&A, 한방차 만들기, 직업체험, 워크북 작성, 소감 발표 및 만족도설문(총 130분)

(라) 세부내용

구분 (130분)	내용	진행	장소
40분	- 활동 안내 및 안전사항 공지 - 한약, 약령시장, 한약학과 소개 - 진로멘토링 Q&A	대학생멘토 대표	센터
	- 한방차 티백 만들기 - “약령직업탐험” 인터뷰 계획 수립	대학생멘토 조별 선생님 (학생5인당 멘토1인)	
70분	- 약령시장 속 4개 직업 체험 - 인터뷰, 워크북 작성	인솔: 대학생 멘토 (조별) 체험 및 인터뷰: 직업인 멘토	시장
20분	- 워크북, 소감 발표 및 만족도조사	경희대학교 대학생 멘토	센터

(5) 활동사진



2) 현행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1쪽 이내)

(1)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진로교육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식 교육 제공은 주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극적인 협력, 참여를 요구하는 홍보가 아직까지 미비하다. 체험처를 발굴하거나 교육자원을 양성할 때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범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지역의 멘토에 대한 보답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노원구는 지역멘토가 일터를 체험처로 개방하는 횟수에 따라 봉사점수를 누적하여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장기적 협력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이 필요하다.

(3) 진로교육 질적 제고 위한 투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hub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양성 및 현실적 예산 투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초기 설립 이유가 자유학기제의 지원에 있어 대상이 중학교 1학년에 중점적이었으나 이제는 초,중,고로 확대되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대상별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학교 내 진로교육력 신장

‘자유학기’ 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외의 교사들이 진로 교육,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과 소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현장직업체험’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학생들의 관심사가 고려되지 않은 직업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학생들이 체험을 준비하는 충분한 과정이 결여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근본적 원인은 체험처 발굴, 학생과의 매칭 역할을 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가 홀로 맡고 있어 일을 열정적으로 처리해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핵심팀처럼 함께 학교 내에 자유학기제를 함께 기획하고, 중추적으로 이끄는 교사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장이 이런 협력을 잘 이끌어내 줘야 할 것이다.

(5) 선택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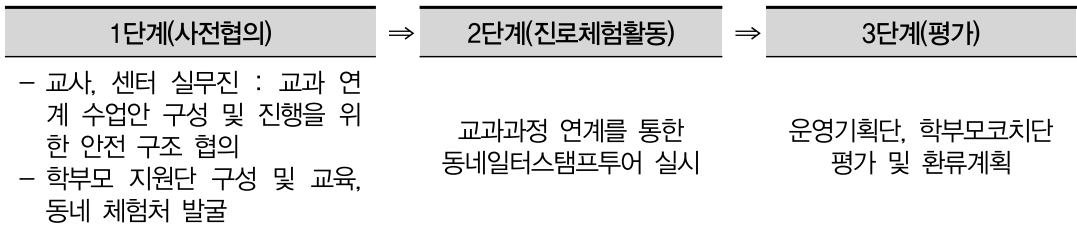
학생 수업 선택권과 교사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막상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선택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활용하기 쉬운 선택 프로그램 교안 및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연구기관 등이 적극 축적된 노하우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의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사업목적

초등학생 대상으로 동네일터의 일경험을 통해 이해와 일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탐색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진로자기이해를 기반으로 체험처를 발굴 및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이 되도록 한다. 마을의 다양한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나고 생생한 현장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2) 진행개요

- 5,6학년 학생 대상 지역사회 일세계 반영 현장 체험 중심 진로교육
 - 진로센터, 학부모지원단 구성 지역사회 진로체험일터 발굴, 교사-학부모-유관기관전담자 협력으로 진로체험 실시
 - 현장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활동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신뢰시스템과정 매뉴얼 공유, 학부모 체험지원코치 협력으로 체험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미있는 현장중심 진로체험 기획 실행
 - 교과과정과 연계 사전교육(4차시)-동네일터스탬프투어(4차시)-사후교육(4차시)으로 실시
- 참여 초등학생 179명(2개교), 학부모17명, 체험일터 24개소(2회), 멘토30명
 - 협력구조



○ 동네일터스텝투어 체험구성(1일, 40분*2곳)

구성	시간	내용
- 멘토 및 일터소개	- 10분	- 인터뷰
- 일터 체험	- 20분	- 간단체험 예) 책방분류코드런닝맨, 은행저축통장만들기, 주민자치센터호적등본발급, 커피숍 '너를위한음료', 캠프 '보안이뭐예요? 경찰서 '출동!유해한곳안전시찰'
- 질문 및 마무리	- 10분	- 스텝프 받기/ 한 줄 소감

○ 사진자료



3) 효과

초등학생들이 진로체험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확장된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경험이었다. 그간 동네에서 소비자로서만 이용하던 일터들을 다른 모습, 다른 내용으로 학생들은 체험했다. 치과에서는 새로운 친밀감이 생겼으며 도서관의 분류법, 청구기호 등은 새로운 앎이었다. 은행에서는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분위기지만 일터를 개방하고 수업을 준비하신 열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평소 보기만 한 행위에서 돈도 직접 세어보고, 통장도 만들고 입금과정도 진행해보았다. 무인경비시스템 일터에서는 하는일, 복장의 중요성, 상황실은 일상에서 접촉하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만날 수 있었다. 진료하는 과정을 시청각자료로 준비하셔서 물리치료에

쉽게 이해를 도와주시는 병원 선생님들도 계셨고 경찰지구대에서는 유해환경 관련 퀴즈 준비와 함께 맞추는 친구들에게 상장을 주는 배려도 보여주셨다. 한의사선생님은 쉽게 풀어 한의학에 대한 설명과 쏟아지는 건강호기심에 꼼꼼한 답변, 직접 맥을 짚어보고 침, 뜸, 환약, 한약 등에 대해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체험개방을 난감해 하던 주민센터는 등본발급 등 간단한 체험 진행을 기획하셨고 지역공무원의 일은 보이는 행정적인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옥상텃밭 가꾸기까지 다양함도 들려주셨다. 음악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음악관련 일은 가수만이 아닌 악기대여, 악기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전달하셨다. 학생들은 동네에서 일하는 어른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간단한 일경험을 할 수 있던 경험이 새로웠으며 그간 소비자로서 사용하며 스쳐 지나가던 곳들이 직업인들이 뛰고 있는 삶의 현장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평가했다. 자신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온갖 준비를 하신 직업인 멘토들과의 접촉은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윗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태도를 경험케 했다.

4) 체험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걸림돌 및 한계(동네일터스텝투어에 한 함)

지속성의 한계=현장진로체험의 위축

동네일터스텝 투어는 학생-학교-학부모-지역센터-지역일터 모두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에 대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은 교육지원청과 지역센터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원하였고 동시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산지원 등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반면 2017년 교육지원청의 팀변화로 같은 프로그램에 안전 및 행정절차에 대한 다른 가치판단(인솔은 교사만이 가능하다. 학부모 인솔은 불법이다. 학교에서 학부모 모집 복잡하다. 학교가 협업하는 구조가 아닌 센터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서비스로 제공할 때 학교진행 할 수 있다.)이 제기되어 이후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7년도는 지원청을 제외한 학교-센터 진행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기반지원 없이 학교-센터의 판단만으로 지속하기는 한계가 있다.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대부분 행정적인 문제) 대안을 만들며 헤쳐가는 방식이 아닌 문제가 있으니 하면 안된다는 결론은 현장 중심의 진로체험 자체를 위축시킬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

1) 추진배경

- 지역 중심의 직업인 멘토풀 발굴 및 멘토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 마을 단위의 진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인 멘토의 교수법을 향상시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 → 검증 안된 외부업체 직업인 멘토 활용 지양
- 지역의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 부모의 편향된 진로의식을 개선하고, 진로교육 주체로서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사회 관심 및 참여율 제고
-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사전 협의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학교별 맞춤형 직업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마을과 학교간의 네트워크 강화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2)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운영장소 : 신청학교 각 교실
- 운영시간 : 80~90분(2교시 진행)
- 대 상 : 양천구 관내 중·고등학생
- 내 용 : 멘토발굴 / 역량강화교육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업 운영
- 운영 방식



- ※ 기본 교육을 이수한 멘토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 모든 멘토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3) 추진실적(2016년 실적)

(1) 지역중심의 직업인 멘토펀 발굴

- 직업인 멘토펀 : 103명 발굴(2017.04.01. 기준)
 - 지역의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멘토펀 확보
 - 활동 중인 직업인 멘토의 입소문을 통한 멘토펀 확장

(2) 직업인 멘토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학생과의 소통 방법,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총 5회
 -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대한 부담 해소
 - 학생의 인권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수법 안내
 - 멘토의 역량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력

- 프로그램 기획 회의 및 사전 회의 : 총 40회
 - 지역의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
 - 학부모와 함께 학교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사전 회의 실시
 - 학교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교별 맞춤형 진로콘서트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 총 28회
 - 학부모들과 함께 진로콘서트 공동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교사 및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학부모 역량 강화

(4) 꿈꾸는 날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 운영

- 꿈꾸는 날 -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운영 : 총 28개교 멘토 345명, 학생 10,309명 참여
 - 한 학년의 학급 수 만큼 직업인 멘토를 지원
 - 2교시 동안 직업인 멘토가 중심이 되어 교실별 진로멘토링 실시

4) 추진성과

- 중·고등학교 84%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지원 : 33개교 중 28개교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정례화 : 총 15회 실시(초등 1회 / 중등 7회 / 고등 7회)
- 프로그램 홍보, 대상 인원의 규모 확보를 통한 진로교육 지지 기반 마련
- 민·관·학 협력체계 기반 조성 : 학부모-진로교사-양천구청 협의·운영
- 지역 기반의 진로교육력 향상 : 직업인 멘토, 학부모의 역량 강화

5) 발전방향 : 양천구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34개교) 확대 지원 예정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진로교육 환경 구축

1) 진로교육 사례 소개

중등 3개년

Star Gate

생애주기별 진로탐색을 위한 창의적 미래진로직업설계 프로그램

진로학교미래 직업세계
& 창작

〈중등 1학년〉

글로벌 인재력
& 리더십

〈중등 2학년〉

기업가정신
& 창업

〈중등 3학년〉

□ 교육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 직업의 창출과 성공적인 직업설계를 위해 미래 핵심 인재역량을 학습
- 자신만의 적성과 재능을 표출하여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한 진로탐색 능력 향상
- 다양한 산업분야의 미래를 통해 확산적 사고방법을 터득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

□ 운영내용

- StatGate 진로학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중등용 창의진로설계 교육으로 서울시 강동구 중학교에 전면 보급되는 프로그램
- 중등 1학년은 미래 직업세계 & 창작에 대해 배우며 2학년은 글로벌 인재력 & 리더십을 학습
- 3학년은 기업가정신 & 창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미래핵심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
-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은 인간의 지속적인 확장성을 대표하는 창의성을 내포하는 직업으로 학년별 모든 교육과정에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운영 되고 있음
- 2016년부터 중등 3개년 진로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2년차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프로그램 개발은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장, 강동구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학년별 3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로그램 교수법은 학생중심의 토론, 토의, 참여, 게임을 통해 진행되며 학생용 워크시트를 제공함

□ StarGate 진로학교 참여 학생 소감내용

-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깊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양한 미래직업을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자동차의 개발로 인해 인력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해도 로봇이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것이다.



2) 현행 진로교육(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

□ 한국과 일본의 직업체험의 비교를 통한 개선

- 한국의 직업체험은 직업체험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본의 커리어스타트 위크의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교과학습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장과 체험기관 및 시설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쌓아가는데 최소 3일에서 5일로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1일 6시간의 체험으로 운영되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를 알고 멘토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확립하고 배우는데 한계점이 있음

- 또한 한국은 1학년 시기에 현장직업체험이 운영되어 학년별 진로탐색 성숙도에 따른 성장중심의 직업체험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입시와 진학에 초점이 맞춘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탐색의 지속적인 발견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직업체험의 평가지표인 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미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의 4가지 성과를 기대 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직업체험이 아닌 학생 성장중심의 직업체험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처의 교육력 향상과 지원이 필요함
-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업체험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진로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
- 직업체험장의 질적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강화와 이에 따른 제반마련, 인적자원의 구성, 교육관계자, 학부모, 주민대표 등 지역별 운영협의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직업체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교육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 가 아닌 “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 는 범 사회적 교육인식과 지역마을 중심의 공동의 교육인식이 확장되길 기대함

1) 청소년 전환기 학습과정 사례 소개

- 오디세이 학교 -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고교자유학년제’

(odyssey.haja.net, facebook.com/odysseyhaja)

오디세이 학교는 일반고 1학년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1년 동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중점과정을 선택하여 깊이 배우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하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의 고교자유학년제 교육과정입니다. 설립 준비과정부터 깊게 관여한 하자센터는 2016년부터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방과 문화예술과정을 중심으로 생활/관계/진로 역량을 키워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획일적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경험을 통해 주체적 학습기획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환기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시대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 담론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 목화학교 - ‘여유로울 권리와 감동받을 자유를!’

(gapyear.productionschool.org, facebook.com/cottenschool)

목화학교는 15세~17세 전환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실과과정으로 1년제 전환기과정의 학교입니다. 목화살이의 리듬에 맞추어 1년을 보내면서 자신과 친구들, 사회와 자연, 그리고 지구와 친해지는 학교입니다. 숨 가쁜 템포로 이뤄진 생활을 잠시 멈추어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쌓고 생활의 잔 근육들을 키워나가며 자신의 리듬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크게 자전거와 농사, 목공으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 글쓰기 및 문화작업과 글로벌 언어학습을 통해 생각의 리듬을 연주해가는 과정, 다양한 또래 청소년들과 손님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는 공유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또 기존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잠시 쉬어가면서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1주일간 목화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환기 학습과정의 의의

지식경제, 혹은 자동화(인공지능)경제로 들어선지 오래지만, 한국의 진로교육은 아직도 구시대의 ‘선형적 단일 진로 모델’에 기반한 명시적 지식의 습득과 자격취득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와 삶의 이행기가 겹친 탓에 어떤 세대보다도 더욱 유동적인 삶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직된 진로직업교육의 틀 안에서 대부분 동기성을 상실하고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전환기 학습과정은 앞만 보고 내달려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활 기술, 배움을 위한 용기, 사회에 대한 감각과 신뢰를 가져볼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2) 청소년 전환기 학습과정의 개선점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전환기 학습과정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자센터는 지속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진로를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Star Gate 진로학교 운영사례(권인수,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제 Ⅲ 장



일본사례

제 III 장 일본사례

01 배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진로교육(아라카와구립중)

커리어 교육의 전체상 (학교 경영 방침으로 둔다)

현재의 일본 공립중학교는 교장이 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교장의 발상, 학교 경영 전략의 구체적 방안이야말로 학교 조직을 크게 변화시킨다.

현재 사회의 니트, 프리터 문제, 이직율 증가, 불황의 영향으로 취직 전선 등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변화하는 시대를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육성하는 커리어 교육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는 힘, 사회 생활에 크게 대응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 경영 방침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실천한다’ 고 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커리어 교육을 ‘전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인, 직업인, 지역인을 육성하는 교육’ 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관리직의 지도력이 큰 과제이다.

1) 외부 인재와 ‘연결 되어 있다는 감정’ 을 살린 커리어 교육의 실천 예

커리어 교육의 추진을 위해 지역 인재의 활용을 비롯하여 지역 소재를 살린 움직임 등을 많이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시도에는 지역 사회, 지역 인재와 연계된 협력 관계가 불가결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 이 공통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계통성이 있는 시도들은 학생들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교직원의 의식 변화로도 이어진다. 더욱이 지역 인재와의 협동은 자연과 지역 안에서 학교를 크게 의식하게 만들어 단순한 교육 참가에서 교육 지원이라는 형태로 변용되어 간다.

(1) 교내 헬로우 워크

‘교내 헬로우 워크’는 30 업종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3 강좌를 수강한다. 강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중학생인 지금 무엇을 배워둘 것인지 지금 익혀둘 필요가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장래에 살아가는 법을 이미지화 하고 동시에 현재의 생활을 재고해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2) 5일간의 직장 체험 “근로 유학”

본교에서는 5일 동안 직장 체험을 시작한지 13년째를 맞이했다. 직장 체험처는 진로 지도 주임을 중심으로 관리직, 학년과 상관없이 전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또한 행정 기관으로의 소개, 커리어 교육의 코디네이터 지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직장 체험의 목적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바람직한 사회성, 근로관, 직업관을 육성하는 것이며 다음의 세가지를 지도의 큰 골자로 삼아 실시했다. ①직장 체험을 통한 학교 생활을 재고 ②장래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한 의식을 향상 ③일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성을 몸에 기르고 근로의 즐거움을 알게 됨 ④직장에서의 근로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 등을 배우는 것이다.

2) 커리어 교육 추진을 위한 대책, 학교 행사에 연관성을 지니게 하는 것의 중요성

특히 직장 체험 등의 행사는 해당 학년의 단발적인 학년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본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재고하여 각 행사에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실천하고 있다. 직장 체험을 일례로 설명하자면 6월에는 사전 준비로 직장 체험 교류회를 실시하여 3학년생이 전 년도의 체험을 2학년생에게 전달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매너 강좌를 실시한다. 실시를 끝낸 2학기에는 수용하기로 한 사업소에서 평가표를 받아 담임과 양자 면담, 직장 체험처의 평가를 가지고 학교 생활의 방향에 피드백을 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문화제에서는 전교 학생에게 직장 체험 보고, 2월의 변론대회에서는 ‘직장 체험’을 테마로 체험에서 배운 것을 전교생에게 전달한다.

3)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이야 말로 교과 지도로 익힌다.

직장 체험 등의 체험 활동은 커리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힘을 교과 지도에서도 병행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교과 수업에서 의도적으로 논의 할 장면을 만들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을 실시하여 서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게 하고 활용하는 정보 수집 능력을 육성시키는 것 등도 매우 중요한 커리어 교육이다. 그 때 태블릿 PC를 활용한 ICT 기기 활용 수업도 사회인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커리어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향후의 과제들… 체험 활동과 교과 지도는 커리어 교육의 양 축

1)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필요한 수업 개선 과제

각 교과, 영역의 지도에서 커리어 교육의 시점, 즉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의 육성이라는 시점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업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주체적, 회화적으로 깊이 배우는 것은 교과 수업 그 자체로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능력의 육성으로 연결된다. 특히 수업에서는 커리어 교육의 4능력 ①' 인간관계 형성, 사회 형성 능력 ② 자기 이해, 자기 관리 능력 ③과제 대응 능력 ④커리어 플래닝 능력을 육성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 시점, ICT기기 활용 수업 시점,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시점, 외부 인재 활용 수업 시점을 도입하면서 수업 개선을 실천해 나간다.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 지도에서야 말로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제도의 개혁도 눈앞에 두고 있어 지식의 양 뿐만이 아니라 스킬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가 요구되는 시대로 들어섰다.

2) 학교 도서관의 학습센터화, 정보센터화, ICT 교육 촉진에 과제

학교 도서관의 학습센터화, 정보센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 도서관 수업, 콜라보레이션 수업 (학교 사서와의 협동 수업)등을 실시하여 언어 능력 육성을 도모한다. 지금까지 수업이라는 시점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았던 학교 도서관을 교육 활동의 장, 교실로 규정하여

사고의 기초를 만든다. 당연히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의 학교 도서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 자료, 과제별 스크랩, 신문 코너 등 정보센터, 학습센터로서의 개선은 불가결하다. 특히 서적과 태블릿 PC를 병용하는 형태로 수업도 실시 할 수 있다.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정보 수집력, 분석력을 학교 도서관 활용으로 배양한다. 기존의 시설, 설비를 커리어 교육의 시점에서 재고해간다.

3) 지역을 활용한 외부 인재 활용 범위 확대 과제

사회의 실물, 본질, 또는 세상의 실태, 엄격함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학교 생활에서의 배움과 진로 선택을 깨닫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학교와 가정 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산업계가 연계하여 담당해야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보호자 분들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조직적인 인재 발굴과 인재 बैं크적인 학교의 독자적 재산을 확충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지역 행사와 지역 방재 활동에 교직원과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관되어 학교와 지역과의 교류를 쌓으며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면 그것이 체험 행사 확대로 연결되어 갈 것이다.

4)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리어 교육 추진 과제

의무교육에서의 커리어 교육추진에서 전문가 도입은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많다. 또한 교육 활동에 외부 인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있어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게스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수용 체제를 재고하고 학교 주도로 교육 활동에 나서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커리어 교육 코디네이터 (경제산업성), 커리어 컨설턴트 (후생성) 등의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와 협동하는 등 사회 전체가 의무교육에서 커리어 추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커리어 교육을 크게 진전 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5) 초 중 일관 학습 프로그램의 실천과 중고 연대 과제

초 중 학교의 일관된 커리어 교육 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의무교육의 커리어 교육이 진전된다. 동시에 초 중 교직원이 중심이 된 인재와의 연결 연대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의무교육 단계의 계통적인 지도 계획, 협동의 지도 계획에 따라 체험 활동, 교과 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게다가 중 고교에서의 커리어 교육의 연대는 별로 이루지고 있지 않다. 향후 학교의 종류를 넘어선 교과 지도 방법 연대, 합동 행사에서의 협동이라는 형태가 구축되어가면 커리어 교육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다.

【“배움”과 “교육”에 관한 시대별 정리 사례 ……각종 학교와 전문학교】

메이지	전후	1975년	향후「구상」
1879년교육령 「각종학교」	1947년학교교육법 「각종학교」법문화 →「학교」의 정의와「학교」에서의 각종학교 제외	전수학교제도창설 「전수학교」병존	직업전문대학구상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참고】 ① 전수학교 제도 개요

- 전수학교 - 고등과정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
- 일반과정 (학력 상관 없음)
- 전문과정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 · 「전문학교」) ※전수학교 중 약80%가 전문과정

② 고졸자의 진로개요 (2016 「학교 기본 조사」)

- 대학 · 단기대학 진학률 (현역) 54.8%
- 전문학교 (※) 진학률 (현역) 16.3%
- 취직자는 약 17%

③ 일본의 학교제도개요 (숫자는 표준적인 입학 연령, 기울어진 것은 의무교육 □는 법제상 「학교」)

(초등교육단계)	(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유치원 (4)	초등학교 (6) 중학교 (13)	고등학교(16) 대학 (19~) 단기대학 대학원 (23~)
		전수학교고등과정 (16) 전수학교전문과정 (19)
		전수학교일반과정 (미정)
		각종학교 (미정)

【본 레포트의 입장】

“커리어 실천”을 구체화 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학교’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라는 시각에서

A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의 「타협」

① 2011년 중교심답신 「향후 학교에서의 커리어 교육 · 직업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P6 “기업의 동향” 등으로 보는 「OJT」의 요소 「감소와 삭감」 경향 지적

가령 2016년 중교심답신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꽃피우고 전원 참가로 과제 해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보증의 방향성」

P4~5 “기업의 동향” 및 P28 「전문직 (업) 대학」의 명칭 제안

……인재 육성의 의의에 대하여 (어떤이에게 「인재」인가?)

- ② 기업에 인재육성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육성 부분까지도 「학교 교육」으로 부담하게 해, 책임전가 하려는 것이 아닌지.
ex. ‘학력주의’ ‘학벌주의’ ‘선발이 잘되는 대학에서의 채용 중시’ 등의 경향은 일정한 합리적인 인재 확보의 한 수단으로서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이 효율 밖에 평가 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본래 책임져야 할 비용’ 또는 ‘자기 책임’ 이어야 할 부분까지도 ‘커트’ 하는 것은 기업이 단순한 이익 추구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인재 육성의 사회적 의의를 다 하는 것을 방치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해야 할 OJT의 일부를 학교에 “전가” 시키고 가령 경제 단체의 지원을 받은 ‘정권’ 이라면 계획 실시된 “커리어 교육”에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의 정립, 구조적인 배치 등 기대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커리어 의욕 형성과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효하게 하려면 산업, 기업에 맞춘 인재 육성은 각각의 기업과 산업계 전체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실행할 교육 자원은 없다. (인적 자원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직종 경험”에 기대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상기 ‘답신’에서 지적이 나와있다.)
- ③ 고등교육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면서 ‘직업’ 의식을 충족하고 각자 커리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현황의 직업 개념과 직업 영역의 인식에서 구체화 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B 전문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 ① ‘문화·교육분야’의 관계 분야로의 취업률 저하 …… 각종학교 이후의 다양한 분야 반영
- ② 직업과 직결되고 즉시 그 직업에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선전’ 안이한 ‘커리어’, ‘꿈’을 선동
한편으로는 「ASUC」 직업 등으로 불리는 개념이 제시되는 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구체 방안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 ③ 예를 들어 전문학교 ‘학교 개편’의 상황 …… ‘문화·교육분야’에서의 개편 ‘빈

번’에는 학교 경영상의 사정이 우선시 된다? → 「외래어」 직업명, 「외래어」 학과명의 ‘납용’

C 「전수학교제도」(「전문학교」내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제도 창설 40년을 거쳐 전수학교제도는 소기의 설치 의도와 목표가 관철되었는가?

- ① 각종학교의 「일조교화 운동」에서 시작된 승격 요구…1947년 「학교」에서 제외된 각종 학교
- ② 각종학교의 다양성 때문에 제도화 곤란
- ③ 구성된 3종류의 전수학교는 내용적으로는 전제의 각종 학교를 거의 답습하는 것. 여기서 「배제」된 것은 「소규모 각종학교」가 중심. 각종학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한 기능을 전수학교(제도)는 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소규모 각종학교의 ‘도태’로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그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
- ④ 「전문직업대학」 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 설계의 근거가 될 검증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시호로초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농업이 번성한 지역중 한 곳인 토카치에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시호로 고교는 시호로초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 시호로 고등학교의 규모는 결코 크지는 않으나 학생들은 농업을 배우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농업과 식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하에서 매일 활동 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각 전공반으로 불리는 연구반에 속해있으며 각각의 테마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 시호로 고등학교에서는 농산가공반, 환경전공반, 육가공전공반, 축산전공반, 지역자원전공반, 발농사전공반, 화초전공반, 유기농업전공반, 야채전공반, 그리고 유가공 전공반이라는 10개의 반이 있다. 저는 오늘 유가공 전공반의 활동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며 커리어의 실천이라는 시점에서 이 반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좋아하는지 또 반의 어떠한 활동이 자신의 커리어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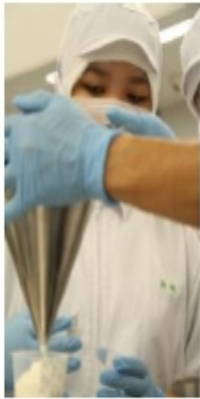


전공반 활동 모습

유가공 전공반은 고교의 우사에서 착유된 우유를 가공하여 상품화 하고 있는 전공반이다. 아주 일반적인 유제품,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최근에는 ‘누프카의 눈녹임’이라는 디저트를 개발하여 판매 하기에 이르렀다. ‘누프카의 눈녹임’ 이란 수분을 제거한 요거트와 크림 치즈를 베이스로 한 디저트로 위에는 하스캡이나 씨베리(두 가지 모두 홋카이도에서만 자라는 작은 과일) 소스가 올라간 것이다. (이 디저트의 맛을 자세히 전달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맛있다고 하더군요.)

유가공 전공반 누프카의 눈녹임 제조 모습

‘전공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이라는 질문에 유가공 전공반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누프카의 눈녹임을 제조하고 있을 때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제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담당 선생님은 뒤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말을 거는 정도로 작업은 모두 학생들이 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작업은 정말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다. 언뜻 간단하게 보이는 작업 풍경은 전공반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들여 구축한 일련의 일의 흐름같이 느껴진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힘은 위대한 것이다. 그것은 일하는 의욕으로 연결되며 살아가는 힘으로도 연결된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결코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호로 고교의 유가공 전공반에서 저는 ‘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육성하는 교육환경을 느꼈다.

상품의 제조 외에 전공반의 중요한 활동에는 판매회가 있다.

판매회에서는 지역으로 나아가 일반 시민에게 고교에서 생산, 제조 한 상품을 팝니다. 유가공 전공반에서는 이 판매회의 일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판매회에서의 상품의 진열, 접객, 회계 등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에는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학교라는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교의 졸업생은 시호로초의 기업과 농협(농업협동조합)에 매년 취직을 하는데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고교에서 만든 것을 시호로초 내에서 판매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연결된다고

느낀다’ 고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한 학생도 있었다.

이상으로 커리어의 실천이라는 시점에서 훗카이도 시호로 고등학교의 유가공 전공반의 활동 모습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소개 했다. 실제로 학생들이 취직을 했을 때 학교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로는 가정과 같은 포근한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패를 해도 선생님들은 따뜻하게 바라보아 주지만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 때로는 너무 엄격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투입 가능한 즉전력을 익히는 것, 즉 일의 기술을 익히는 장소가 본교에는 있다. 150명의 학생이 있으면 150개의 커리어 설계가 있는 것이 되는데 본교의 전공반에서 학생들이 체득한 것은 각각의 형태로 각각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다.

1) 실천개요

레이타쿠 중·고등학교에서는 2002년 중학교 개설을 계기로 중고 일관 9년간의 강점을 살린 커리어 교육을 행해왔다. 이 교육은 종합적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며 본교에서는 이것을 ‘자기(꿈) 프로젝트’라 부른다. ‘자기 프로젝트’에서는 중학교 1년차부터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을 이미지 하기 위한 교육을 행해왔다.

전반의 중학기는 가능한 한 아이들의 관심을 폭넓게 확산시키고ダイナミック하게 가능성을 찾아 추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자연’, ‘문화’, ‘사회’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 각각 작은 테마를 설정해 연구한다.

1년차에는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캠퍼스의 식물 관찰부터 시작하는 ‘필드 워크’와 ‘숲과 인간 사회’의 연구를 한다. 2년차는 사회, 국가에 눈을 돌려 ‘일본문화 연구’(간사이 연수)와 직업 활동을 한다. 3년차에는 직업 연구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이문화연구’(영국 연수)를 통해 자기라는 존재를 다방면에서 다시 살펴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 하나의 경험에서 작은 테마를 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 학습성과를 포트폴리오하고 파일링 한다.

후반의 고교기에서는 중학기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관심, 지식, 탐구심 등이 학생들 스스로의 꿈과 의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 나간다.

4년차(고교 1년)에서는 “자기 재발견”을 테마로 하고 졸업생들의 진로 강연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 대학, 학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는다.

5년차(고교 2년)에서는 대학에서의 배움과 일본 역사에 대해 깊이 배움으로써 본인의 사명과 의지의 재발견으로 이어진다.

이어 6년차(고교 3년)에는 의지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각각 제1지망 대학에 맞추어 ‘프로젝트 예지’와 ‘수험 소논문 특강’ 등 수험 대책 강좌 등에 임하며 3년간의 배움을 집대성해 나간다(참고 <http://www.hs.reitaku.jp/heart/2012073119331618.html>).

2) 레이타쿠 중·고등학교의 커리어 교육의 지금부터의 과제

레이타쿠 중·고등학교의 커리어 교육은 ‘자기(꿈) 프로젝트’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의 과제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직접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과 두번째는 직업에 관한 체험 학습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자기 프로젝트’ 안에서 직업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학교 2년차 3학기부터 중학교 3년차 1학기 사이이다. 이 기간에 이 세상의 직업에 대해 널리 조사하고 그 후 관심이 있는 직업에 대하여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취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로 짧은 상황이다. 향후 직업에 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과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교에는 직업 체험이 없다. 그러므로 커리어 교육에서 직업에 대해 배우도 그것은 책상에서 이해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지금까지도 직업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토는 있었지만 사립 학교라는 점에서 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향후 직업 체험 실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1) 기관소개(커리어링)

커리어링은 학교 교육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공교육혁신에 특화된 교육 컨설팅 회사로 1991년에 창업하여 25년간의 영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 사회를 연결하는 것을 ‘커리어 교육’의 테마로 실천하고 CSR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교육 지원 계발·추진·실시에 대한 토탈 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2) 커리어 교육과의 관련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1994년 당초 커리어 교육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진로 지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이들이 미래에 사회적, 직업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힘을 육성하는’ 교육이라는 점이 인식되어 학교 교육에서 사회와 연관되는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 기업의 교육 CSR 활동 추진

주식회사 커리어링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공교육 지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지금부터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따라 교육 지원 활동을 실현하려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 ① 기업 강사가 학교로 출강하여 수업을 실시한다 ‘출장 수업’
- ② 아동, 학생용 교재를 제공하여 교직원들이 수업을 한다 ‘교재 제공’
- ③ 공장 등의 시설에서 아동·학생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공장 견학’
- ④ 기타 ‘콩쿨’, ‘교사 연구’, ‘조성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기업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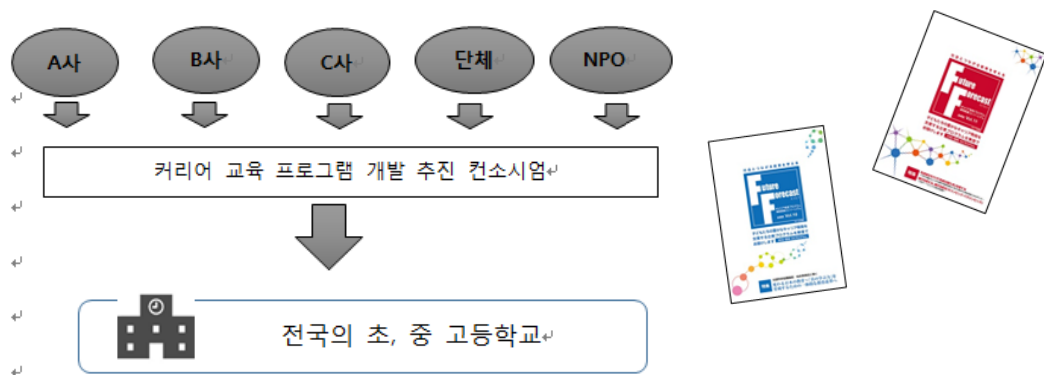
최근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와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 ‘리얼한 주제’, ‘기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의의와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려면 교육 현장과 산업계 모두에서의 Win-Win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가진 독자적인 교육적 리소스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기술 혁신과 기업 이념 등)를 아동, 학생의 커리어 개발에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학년, 교과, 단원과 교육 방법을 검토하여 학교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사업입니다. 더욱이 개발한 기업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재를 전국에 보다 많은 아동, 학생들이 접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6년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4)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컨소시엄의 활동 개요

(<http://www.career-program.ne.jp/>)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컨소시엄’ 은 멤버 기업, 단체 등 각자가 가진 독자적인 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학교 현장에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5) 컨소시엄 서비스 내용

【서비스 1】 교육위원회용으로 전 기업,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게재한 책자 ‘Future Forecast를 발행 (※2016년도판 책자 배포)

➔ 학교 현장에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활용을 보급, 촉진

【서비스 2】 교직원용으로 전 기업,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검색 할 수 있는 WEB 사이트를 운영,

➔ 교직원이 자신의 학년, 교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자료 청구와 신청이 가능함

【서비스 3】 교육 관계자와 교육 지원 활동과 관련된 기업, 단체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

‘교육 CSR 포럼’ 개최

➔ 문부과학성, 지자체, 학교, 보호자와 지역 사람들,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입장에서 참가 할 수 있다. 배움의 기회 제공

6) 교육 프로그램, 교재의 특징

미래의 커리어 교육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온 ‘윤리적 사고’, ‘비판적 지향’, ‘문제 해결, 발견력’ 의 육성을 시점으로 한 다양한 테마의 44개 프로그램을 각 학년의 교과 학습의 발전으로 활용하는 등 ‘커리큘럼 매니지먼트’ 라는 시점으로 학교 전체에서 토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컨소시엄 멤버 24 기업, 단체, 44개 프로그램 개요〉

【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직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교과】 생활, 이과, 사회과, 기술, 가정과, 보건 체육, 도덕, 종합적인 학습 시간, 특별 활동

【수업 형식】 출장 수업형 (기업 강사가 수업 실시), 교재 제공형 (교원이 수업 실시), 공장 견학형 등

【테마】 환경, 에너지, 가사, 청소, 주택, 금융, 경제, 화학, 건강, 올림픽 등

【교재】 교원용: 티쳐스 가이드, 슬라이드 아동, 학생용: 워크북, 영상 등

1) 개요

본교는 이바라기현의 현 서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고교강, 코가이 강, 서쪽으로 키누강이 흐르는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이다. 아동수는 514명의 대규모 학교이다. 또한 2007년도부터 학급 활동을 연구하고 있는 학교로 작년에는 국립 교육 정책 연구소가 지정한 학습 지도 실천 연구 협력 학교 사업의 연구 협력 학교로 실천을 해왔다.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2008년 3월 고시)의 학급 활동 (1)에서는 ‘3단계 검토법’ (제출→비교→정리), 학급 활동 (2)에서는 ‘4단계 전개법’ (포착→탐구→발견→결정)이라는 지도법을 활용하여 실천 연구를 거듭해 왔다.

2) 학급 활동의 커리어 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힘

(1) 활동에 대하여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집단인 학급의 목표를 결정하는 활동이 된다. 학급 목표는 의논하는 활동을 통하여 결정하는데 본교에서는 설문조사로 집계된 ‘보호자의 바람’도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가정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시점을 커리어 교육을 통해 능력으로 익힐 수 있게 반영한 활동이다.

(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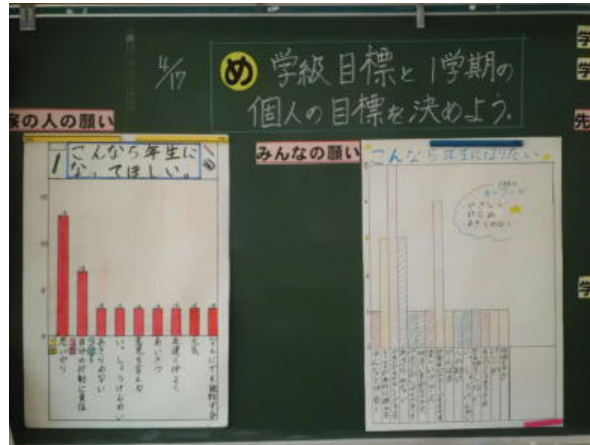
- 가정에서의 논의와 학급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 관계되는 힘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살펴보는 힘
- 이상적인 학급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 움직이는 힘
- 보호자의 바람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힘을 기른다 → 내다 보는 힘

(3) 성과

① 활동의 모습에서

원래, 학급 활동의 시작은 수업 시간부터이지만 사전 단계에서 보호자를 향해 ‘보호자의 바람’을 의뢰해 두면 가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탐구’ 단계가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커리어 교육으로 익힌 ‘관계되는 힘’이 늘어났다. 더욱이 관계되는 힘과 연동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살펴보는 힘’과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내다보는 힘’ 육성에도 효과적이었다.

<그림: 발견하는 단계의 칠판 게시 사진>



② 아동이 되돌아 본 점 (기술)

○ 관계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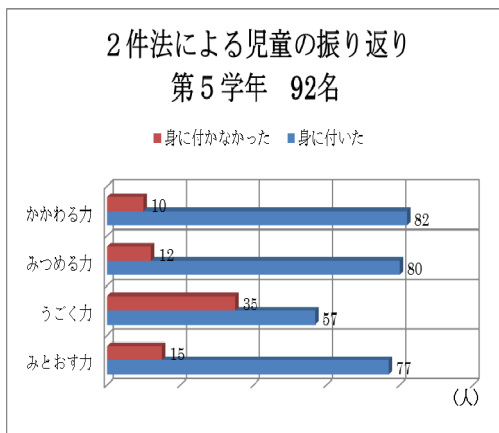
- 가족들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 보호자가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알게 되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부모와 함께 생각함으로써 부모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늘었다.

- '살펴보는 힘'
 - 부모와 이야기를 해 보면 자신의 세세한 부분까지 봐주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 '일한다' 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지 않는것인가... 좀더 집에서도 잘 도와주면 좋겠다.
 - 자신의 나쁜 점을 고칠 단어를 넣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나쁜 점을 깨닫게 될 수 있었다.

- 내다보는 힘
 - 좀 더 보호자의 바람이 구체적이 되면 우리들도 좀 더 노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목표로 하는 것 등을 함께 상담하면서 정하고 싶다.
 - '좀 더 내가 힘내야 한다' 는 마음이 강해졌다.
 -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

(4) 과제

‘보호자의 바람’ 을 반영함으로써 전개 할 수 있는 커리어 교육의 실천에서 과제도 드러난다. 그것은 ‘움직이는 힘’ 의 육성을 위한 과제이다. 아동의 회고에 의한 집계 결과를 이하로 나타내어 본다.



이것은 2016년 제 5학년 92명에게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성과로 꼽고 있는 세가지 힘을 보고 있으면 ‘관계되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89.1%, ‘살펴보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86.9%, ‘내다보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83.6%였다. 그러나 ‘움직이는 힘’을 길렀다고 대답한 아동은 61.9%였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힘’을 육성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즉 좀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아동의 ‘내다보는 힘’의 기술에서 회고한 것처럼 ‘같이 상담하면서’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기 도중이나 정기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받는 기회를 마련하여 과제 개선에 노력하고자 한다.

1) 개요

우리 오키나와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400km, 동서로 1000km로 펼쳐져 있고 39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인구 130만명의 도서로 이루어진 현이다. 과거 오키나와는 ‘류큐’로 불리며 대항해 시대에 가장 앞서 14~15세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조선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과 무역, 문화 교류를 하는 등 독립국으로서 눈부신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1600년대 류큐 침공 끝에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미합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등 시대에 농락당한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다.

2) 배경과 현황

현재의 오키나와에서는 1972년 시정권의 일본정부 반환 이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완전실업률이 이어졌으며 현민 소득 모두 국내 최하위였다. 과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오키나와 현은 시책과 연동된 현민 운동 ‘모두 함께 굿잡 운동’ (이하, 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초에는 완전실업률이 8%였기 때문에 전국 평균인 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요점은 3가지로 ①고용의 장을 늘린다 ②고용의 미스매치를 막는다 ③커리어 교육을 확충한다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필 할만한 것은 현민 운동의 요체로 ‘잡 쉐도잉’을 활용한 커리어 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 대한 커리어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주어 양쪽 모두에 근로관, 직업관을 양성하고 커리어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현민 운동이 개시 된지 올해로 10년째. 국제 물류 거점 허브 기능, 고도의 IT산업 집적 영역 등의 경제 전략과 경제 특구,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시책으로 국내외에서 유치된 기업은 500사를 넘었다. 리딩 산업인 관광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크루즈 선박의 취선 등으로 입역 관광객수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을 계기로 경제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듯 산업 단체, 기업, 지자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실업률 3%까지 개선되었다.

또한 커리어 교육에 관해서는 2009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 위원회, 학교, 경제 단체 그리고 행정의 연계하여 각 주체 간에 협의, 의사 결정을 하는 협의회 방식으로 지역 연계 형태 커리어 교육의 롤 모델을 확립했다. 이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기른다’ 를 목적으로 산학관 및 지역이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한 시도는 2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이 시도들에 대해 2015년에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공동표창제도 ‘커리어 교육 추진 연계 표창’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과제

2007년 당초보다 현민 운동의 중심에 커리어 교육을 둔 큰 요인은 청년층 고용 과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완전 실업률은 13%, 신규 졸업 무직자는 고졸 18%, 대졸 27%였다. 덧붙여 비정규 고용률 그리고 조기 이직률이 전국 1위였다. 이러한 청년층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 이라는 관점에서 커리어 교육을 확충 시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 현민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 전체의 완전실업률이 8%에서 3%로 고용의 “질”의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무직 수를 비롯한 청년층 고용에 관한 수치는 개선 경향은 보이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을 생각함에 있어 현 내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진로 선택 시에 ‘공무원 지향’, ‘오키나와 지향’, ‘가족, 친구 지향’ 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요컨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교생에 대한 조사에서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 제 1위는 학생, 보호자 모두 ‘공무원’ 을 꼽고있다. 실제로 합격률의 10~15배의 좁은 관문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재수생도 드물지 않다.

한편 각 업계 모두 경기 동향과 관계 없이 인재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 본인의 시야가 좁은 것도 있고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도 전력, 금융, 항공 등 대기업에 인기가 집중되고 네임 벨류가 낮은 기업은 인기가 낮다. 그러므로 99.8%가 중소기업인 오키나와에서는 ‘일이 있어도 취직 할 수 없다’ 는 불가사의한 현실이 있다.

이것은 직종과 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종의 종류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흥미가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미뤄온 채 선택의 시간을 맞이해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대로 1위 ‘어머니’, 2위 ‘아버지에 이어 ‘교사’ 가 있었다. 그들에게 신뢰받으며 최근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정보의 정확함은 진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 방법과 목적

현민 운동 속에서 전개되어온 커리어 교육은 지역에서의 커리어 교육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한다는 횡단적 전개에 더불어 6년째를 맞이하는 2013년부터는 학교 후의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접속을 지향한 종적인 연대를 구축해왔다. ‘산업해의 매력’을 수신하고 발신하는 ‘미래의 산업 인사 육성 사업’이라는 시도들은 오키나와현의 주요한 산업이면서도 인재 육성 및 확보에 과제를 지닌 ‘관광’, ‘건축’, ‘정보통신’, ‘의료’, ‘복지’, ‘문화’, ‘물류유통’의 7 업계와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산업계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각각의 현황과 과제에 정통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쌍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했다.

대상은 오키나와현 전역의 초 중학생. 장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단계인 초등학생과 ‘되고 싶은 자신’과 ‘될 수 있는 자신’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한 중학생에 대해 직종의 다양성과 산업해의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시야를 넓혀 직업 의식을 고취시키며 아동 학생들이 스스로가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만든다. 이와 함께 아동 학생의 가까운 존재인 교사, 보호자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 도구를 활용한다. ①직업인 강좌 ②체험 (학교 출장) 강좌 ③견학 투어를 교육 과정상의 각 교과에 규정하여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연간 학습 계획 책정 시에 교육 위원회와 연계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틀을 보충하기 위해 7산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dvd를 제작하고 현 내의 전 초 중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dvd는 초 4, 5학년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각 15분 7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있다. 기획, 취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업계 단체와 반년 동안 제작하였다.

5) 성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207개의 초 중학교 23,673명의 아동 학생들에 대해 실시되었다. 협력 기업 수는 125개 사업소, 187분이 강사로서 커리어 교육에 관계되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1,251명에게 강의 34회, 기업 견학 투어 3건을 실시했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는 25회, 1,492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 시도들 안에 ‘산학 합동 회의’ 라는 교육계와 산업계, 행정의 한자리에 모여 실시하는 원탁회의가 연 2회씩 실시되고 있고 지금까지 4년간 5회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교육 위원회와 실시 학교의 교사, 사업과 관련된 7산업의 각 대표자 그리고 각 산업과 관련된 행정 담당자이다. 커리어 교육의 의의와 채용, 인사 과제 등의 정보 제공을 하면서 학교별 좋은 사례와 산업계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등 향후 커리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심도깊은 회의를 해왔다.

한큐(阪急)전철주식회사는 사회공헌활동 「한큐한신 미래의 꿈·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마을을 짚어줄 인재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차세대 육성」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본사 창업자인 고바야시 이찌조(小林一三)의 마을만들기 노력에 대해서 알리며, 마을에 많은 일이 있다는 점,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넓힐 수 있도록 기대한다.

1) 개요

관련교과: 종합적인 학습시간, 도덕	대상: 초등학교 5, 6학년
시수: 2시간	테마: 진로교육, 도덕(조상배우기)
수업양식: 출장수업	실시지역: 당사 지역내
실시기간: 5월~3월	(오사카, 교토, 효고현)

2) 특징

① 근로관, 취로관(勤勞觀·就勞觀) 양성

한큐전철의 마을만들기 노력을 알리고, 일의 역할과 중요성, 노력과 공부를 일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회사에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림.

②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교재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일,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일, 전통적인 일 등 100종 이상의 일을 자신의 흥미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워크북 교재 제공

③ 자타 이해능력 육성

자신의 흥미를 분석함으로써 자기이해를 깊게 하고, 타사의 다양한 개성을 이해하며, 서로 인정하는 자타이해능력 육성

◆포인트◆

내가 몰랐던 나를 알고,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확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흥미를 분석, 워크북에 실린 100종 이상의 일 중에서 자신의 흥미에 맞는 일을 찾음.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와 하나의 관심이 다양한 일과 연결된다는 점의 인식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넓힘.



3) 수업의 흐름 (45분x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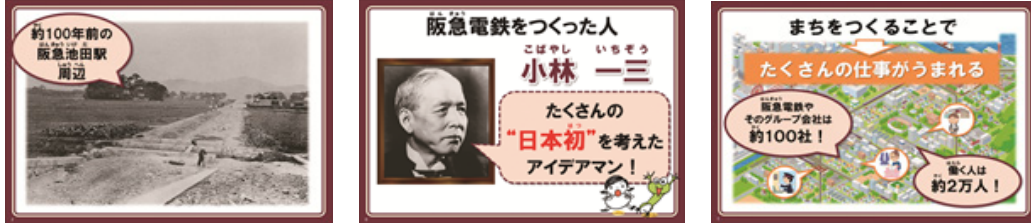
- 목표 ● 「마을」 만들기의 꿈에 쏟은 선인의 노력과 방법 알기
 ● 「마을」에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업관과 근로관을 육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일이 많다는 점 인식 → 일의 선택지 확장

사전준비 ※교사가 실시	나의 흥미는 무엇일까? ※학습활동시간에 실시 자신의 흥미 체크하기
도입	· 강사자기소개 · 수업목표 전달
전개 ① (모듬활동)	고바야시 이치조우는 한큐전철의 마을만들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마을」을 알기 위해 선인들의 노력과 지혜 알기
전개 ② (개인활동) (모듬활동)	「마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 흥미와 일의 연결점 찾기 · 흥미를 가진 일에 대해 생각하기
まとめ	· 종합정리 · 질의응답



4) 교재

① 슬라이드 교재



② 어린이용 워크북·사전 체크리스트



年 組 名 前

わくわく WORK PROGRAM **自分が興味のあること チェックシート**

自分が興味のあることを3個以上えらび、チェックを入れよう!

1	友達と遊ぶ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2	友達といっしょに考えたり、行動す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3	自分の想いを伝えたり、友達の話をきく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 マークの仕事を確認しよう
4	人のために、自分に何ができるかを考え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合計 <input type="text"/> 個
5	お手伝いなどをして、人に喜んでもらう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6	未体験に思ったことを人に聞いたり聞かされることが好き。	<input type="checkbox"/>	
7	植物や動物などいろいろなものの特徴を観察す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8	調べたことや考えたことを絵や図、文章にすることが好き。	<input type="checkbox"/>	■ マークの仕事を確認しよう
9	調べたことや考えたことを試してみ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合計 <input type="text"/> 個
10	何が長く、何が長くなかったかを考え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11	ゲームをしたり、道具を使う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12	道具を使って絵や図形をかく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13	料理、工作、手芸など、道具を使ってものをつく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 マークの仕事を確認しよう
14	いろいろなものを組み合わせて新しいものをつく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合計 <input type="text"/> 個
15	ものをつくるときに、自分の考えで工夫することが好き。	<input type="checkbox"/>	
16	歌うことや踊ること、楽器で演奏することが好き。	<input type="checkbox"/>	
17	絵や漫画、物語をかく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18	本や漫画を読むときに物語の筋きりを想像することが好き。	<input type="checkbox"/>	★ マークの仕事を確認しよう
19	新しい遊びなど、人が考えないようなことを考えるのが好き。	<input type="checkbox"/>	合計 <input type="text"/> 個
20	自分の考えを表現して、みんなの前で発表することが好き。	<input type="checkbox"/>	

© 阪急電鉄株式会社/無断転載 複写禁止

1) 운영기관 소개

오션21은 유한회사로 오키나와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로 현재 오키나와현의 진로교육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진로교육 코디네이터의 활용

요나바루히가시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잡채도우잉 프로그램은 5월 중순에 시작해서 6월 28일에 사후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신문은 9월에 완성됨. 그간에 이루어진 잡채도우잉 체험이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오리엔테이션→사회인강좌→매너강좌→체험형 잡채도우잉→감사장 작성 및 배포→신문제작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에서의 전형적인 잡채도우잉 프로그램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인 강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직업인(자원봉사)의 강좌를 듣게 되는데, 강사의 강의경력을 고려하여 강의경력이 적은 직업인에 대해서는 교사가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교사가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 두 직업인을 차이와 공통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찾는 국어수업과 연계해서 실시. 매너강좌는 나하시 버스회사의 버스가이드들이 직접 교재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등 매단계마다 다양한 지역사회 직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는 진로교육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주효했으며, 배경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진로교육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협의회」의 역할이 크다. 오션21은 오키나와 지역 협의회를 맡아 오키나와 지역에서 활동할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여 각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교사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체험터와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3년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가 현에서 80, 초(기초자치구)에서 20을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지만, 내년부터 현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어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초자치구에서의 관심여부, 예산의 책정여부에 따라서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1) 학교소개

시미즈 초등학교와 마츠바라 초등학교는 가고시마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로서 시미즈 초등학교는 1917년, 마츠바라 초등학교는 1926년대부터 주변에 있는 사쿠라지마에서 가고시마까지 연결되는 키큰만(4.2km)를 횡단하는 행사를 해오다, 일본패전후 중지됐고, 다시 시미즈 초등학교는 1982년, 마츠바라 초등학교는 1966년에 창립 90주년을 계기로 재개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2) 키큰만 횡단 수영 행사의 개요

두 학교 모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첫 번째 참가자, 두 번째 참가자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의 모자색을 달리하며 운영하는데, 이것은 가고시마 교육의 전통인 고쥬교육(郷中教育) 차원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도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활용됨. 즉, 시미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상급인 흰모자, 마츠바라 초등학교는 파란색모자를 쓴 학생들(주로 6학년)이 하급생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라를 횡단함으로써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함.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감, 동기부여, 상호협력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학교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행사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연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년도 횡단에는 시미즈 초등학교학생 83명, 마츠바라 초등학교 학생이 69명이 7월 29일과 7월 30일에 각각 키큰만을 횡단하였으며, 학부모와 관련자들이 탄 20여척의 배가 이들을 리드한다.

3개월전부터 희망자들이 등록하여 참가하며, 참가비용은 20~30만원 정도임. 두 학교가 중간점검을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4.2km 바다를 횡단하기 충분한 훈련과정을 거치며, 몇 차례의 검정과정을 거쳐야 횡단행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략 1/3 정도의 학생들은 거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시작하며, 이로부터 3개월 후에 만을 횡단하게 될만큼 철저한 훈련과정을 거친다. 장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인내심과 자신감을 기르게 됨. 단순한 체력단련행사가 아닌 진로교육로서의 좋은 사례가 됨. 졸업생들도 일부 참가하며, 졸업생을 비롯하여 코치 등 모든 참가자들 역시 몇 차례의 검정을 거쳐야 참가할 수 있다.

3) 두 초등학교 긴코만횡단의 차이

두 학교에서 추진하는 긴코만횡단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두 학교 모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시미즈 초등학교는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기는 하나,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크며, 더 다양한 지역사회주민들이 참여하는 반면, 마츠바라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연계를 하지만, 시미즈 초등학교에 비해 매우 한정된 지역사회인력이 참여하며, 행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교사들이다.

둘째, 시미즈 초등학교에서는 고주교육을 강조하여, 선배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마츠바라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중심이고, 교사들의 리더십이 강조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현철 (2013).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정책의 방향모색: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NYPI 기획세미나.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Fujita, Teruyuki (2017).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Japan.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東京都(2010). ワークワークウィーク東京平成20年度中学生の職場体験の中間報告書.
- 日本国立教育研究所(2017).2015年度における職場体験・インターンシップ実施状況経年変化に関する報告書.
-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08). 「地域に学ぶ「トライやる・ウィーク」—10年目の評価検証(報告)」.
-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15). 2016年「トライやる・ウィーク」実施報告書.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운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희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옥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8-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82-0 94330

979-11-5654-149-3 (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40-02
연구보고 17-R18-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II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820 94330
ISBN 979-11-5654-182-0
ISBN 979-11-5654-149-3 (세트)